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2019. 6. 3.

KEF 한국경영자총협회
KOREA EMPLOYERS FEDERATION

 **대한상공회의소**

KBIZ 중소기업중앙회
Korea Federation of SMEs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Federation of Middle Market Enterprises of Korea

1 화재감시자 배치

< 경영계 의견 >

- ① 용접·용단 작업이 없을 경우 화재감시자가 다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검직 허용)
- ② 가연성 물질을 '인화성 물질'로 변경

가. 개정 법률

- 제38조(안전조치)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나.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및 경영계(안)

현 행	개정(안)	경영계(안)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 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2. 연면적 5,000제곱미터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 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 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하부에 가연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인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

<p><u>이상의 냉동·냉장창 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u></p> <p>3. <u>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u></p> <p><u><신 설></u></p>	<p><u>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u></p> <p>3. <u>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위치한 벽 또는 바닥 개구부 등의 인접지역에 가연성물질이 노출된 장소</u></p> <p>4. <u>가연성 물질이 금속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u></p>	<p><u>스(이하 이 조에서 “인화성 물질”이라 한다)가 있는 장소</u></p> <p>2. <u>작업반경 하부에 인화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u></p> <p>3. <u>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위치한 벽 또는 바닥 개구부 등의 인접지역에 인화성 물질이 노출된 장소</u></p> <p>4. <u>인화성 물질이 금속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u></p>
--	--	--

다. 검토의견

- 개정안 제241조의2(화재감시자)는 용접·용단 작업 시 작업반경 11m 이내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토록 함
 - 화재감시자는 화재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해야 함(전담 화재감시자 배치)
- 그러나 화재감시자에게 화재감시 및 대피업무만을 ‘전담’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기업의 인력 운용상 많은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 화재감시자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용접작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부업종(조선업)의 경우 개정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의 화재감시자를 새롭게 채용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종전에는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이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실(LPG탱크)에 인접한 장소”로만 규정하였음

－ 이는 LPG탱크가 보온재가 감싸져 있고 이를 선박에 탑재(주로 용접·취부작업)하는 과정에서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해당 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가 신설(2017. 3. 3)된 것임

○ 그러나 개정안은 LPG탱크 부분을 삭제하고, 화재감시자 배치 장소를 ‘용접·용단작업 + 11m 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경우’ 등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를 조선소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수천명의 인력을 채용해야 할 것으로 추정

－ A조선소의 경우 용접, 취부, 절단 등 화기작업자가 9,400여명으로 2인 1조 작업을 가정할 경우 화기작업 포인트가 4,700여곳에 달하는데, 선박 구조상 작업장소가 구분되어 모두 산개해서 작업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4,700여명의 화재감시자가 필요하며, 화재감시자 1인이 2포인트를 감시한다고 하더라도 2,300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해당 작업은 대부분 협력업체가 수행)

□ 또한 법령상 가연성 물질의 정의가 없어 점화될 수 있는 가스·증기·액체 형태의 가연성 화학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가연성 소재로 만들어진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함

○ 조선업의 경우는 선박에 다양한 물품들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한정된 작업공간 내에 동시 다발적인 작업이 많아 작업현장에서 불에 탈 수 있는 재료*를 모두 제거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결국 화재감시자를 모두 배치해야 한다는 의미)

* 단열재, 각종 내장재 조각, 나무토막, 기름, 플라스틱, 종이 부스러기, 전선 등

□ 따라서 화재감시자로 채용된 인력이 용접·용단작업이 없을 때는 다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연성 물질을 법령상 용어인 인화성 물질(동 규칙 별표 1)로 수정 필요

끝.